

이 자료는 **6월 21일(금) 06시**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

| | | |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|
| 배포일 | 2019년 6월 20일(목) (총 11쪽) | 담당부서 | 위해정보국 위해예방팀 |
| | | 담당자 | 최윤선 팀장 (043-880-5421) 조지영 대리 (043-880-5424) |

나들이 계절, 외부 활동 시 어린이 안전사고 주의

- 여가·문화·놀이시설 안전사고 5~7월에 다발 -

화창한 날씨에 바깥나들이를 계획하는 가정이 많지만, 외부활동 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여가·문화·놀이시설에서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보호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.

한국소비자원(원장 이희숙)에 따르면 최근 5년간(2014년~2018년)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(CISS)*에 접수된 여가·문화·놀이시설에서의 만 14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는 총 7,603건**이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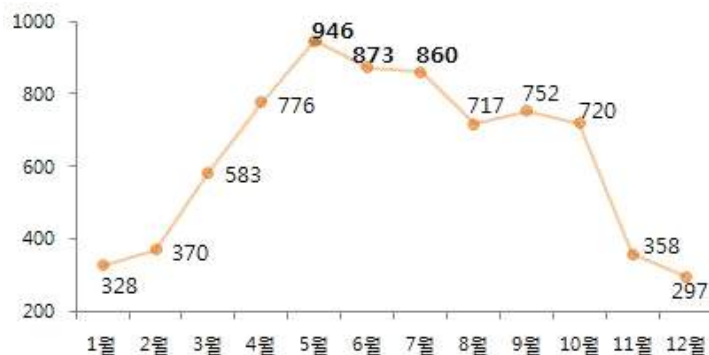
* 「소비자기본법」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, 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 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·평가하는 시스템(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)

** '14년 2,243건, '15년 1,479건, '16년 1,177건, '17년 1,395건, '18년 1,309건

□ 외부활동 증가하는 5~7월, 공원·키즈카페·놀이공원에서 다발

발생 시기가 확인된 7,580건을 월별로 분석한 결과, '5월'이 12.5%(946건)로 가장 많았고, '6월' 11.5%(873건), '7월' 11.4%(860건)로 뒤를 이었다.

[월별 현황]



장소별로는 '공원' 29.9%(1,234건), '키즈카페' 26.2%(1,082건), '놀이공원' 17.1%(705건), '목욕탕' 13.9%(574건)로 상위를 차지했다. 세부 품목별로는 '미끄럼틀'이 13.9%(1,056건), '트램폴린' 10.6%(807건), '그네' 8.1%(619건), '목욕탕 시설' 6.5%(494건) 순으로 나타났다.

□ 넘어짐 · 추락 · 부딪힘으로 인한 열상 · 타박상 · 골절 사고 발생

여가·문화·놀이시설에서 발생한 어린이 안전사고는 주로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(39.6%, 3,006건), 추락(28.5%, 2,167건)하거나 부딪히는 사고(20.8%, 1,581건)가 대부분이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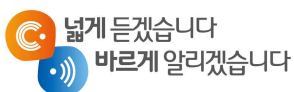
이로 인한 위해증상으로는 ‘열상(찢어짐)’ 38.8%(2,950건), ‘타박상’ 19.3%(1,469건), ‘골절’ 17.4%(1,326건), ‘찰과상’ 8.0%(610건) 순이었다. 부위별로는 ‘머리·얼굴’이 57.2%(4,351건)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, ‘팔·손’ 22.3%(1,697건), ‘둔부·다리·발’ 15.0%(1,143건) 순으로 나타났다.

주로 롤러스케이트, 자전거 타기 등 스포츠 활동을 하다가 넘어지는 사고, 놀이터에서 미끄럼틀, 트램폴린 등 놀이시설을 이용하다 추락한 사고, 목욕탕이나 수영장에서 미끄러져 다친 사고 등이 많았다.

□ 외부활동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교육과 보호자 주의 필요

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어린이가 놀이시설을 이용하면서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주고 스포츠 활동 시에는 안전모, 보호대 등 보호 장구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.

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 어린이 발달 특성 및 다발 사고 유형을 고려하여 어린이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콘텐츠 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다. 또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을 유도하는 등 어린이 안전사고 및 위해 발생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.



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
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www.kca.go.kr



- **(현황)** 최근 5년간(2014년~2018년)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(CISS)에 접수된 여가·문화·놀이시설에서 발생한 만 14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는 총 7,603건임.

[접수 현황]

단위: 건, %

| 구분 | 2014년 | 2015년 | 2016년 | 2017년 | 2018년 | 합 계 |
|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여가문화놀이시설 | 2,243 | 1,479 | 1,177 | 1,395 | 1,309 | 7,603 |
| 전년대비 증감률 | - | △34.1 | △20.4 | 18.5 | △6.2 | -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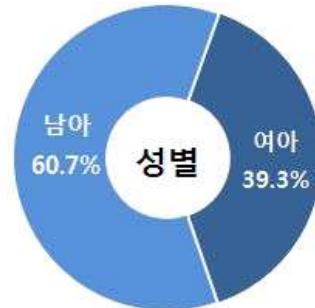
- **(성별)** ‘남아’가 4,617건(60.7%), ‘여아’는 2,985건(39.3%)으로 ‘남아’의 비율이 21.4%p 높았음.

[성별 현황]

단위: 건, (%)

| 구분 | 건수(비율)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남아 | 4,617 (60.7) |
| 여아 | 2,985 (39.3) |
| 미상 | 1 (0.0) |
| 합계 | 7,603 (100.0) |

[성별 현황]



- **(발달단계별)** 어린이 발달단계 중 ‘유아기’가 2,691건(35.4%), ‘학령기’ 2,537건(33.4%), ‘걸음마기’ 2,323건(30.5%) 순으로 나타났으며, ‘영아기’가 52건(0.7%)로 가장 적었음.

[발달단계별 현황]

단위: 건, (%)

| 구분 | | 건수(비율)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취학전 | 영아기 (0세) | 52 (0.7) |
| | 걸음마기 (1~3세) | 2,323 (30.5) |
| | 유아기 (4~6세) | 2,691 (35.4) |
| | 소계 | 5,066 (66.6) |
| 학령기 (7~14세) | | 2,537 (33.4) |
| 합계 | | 7,603 (100) |

- **(발생시기별)** 발생시기가 확인된 7,580건을 월별로 분석한 결과, '5월'에 발생한 안전사고가 946건(12.5%), '6월' 873건(11.5%), '7월' 860건(11.4%)으로 나타나 5~7월에 주로 다발하는 것으로 분석됨.

[발생시기별 현황]

단위: 건, (%)

| 1월 | 2월 | 3월 | 4월 | 5월 | 6월 | 7월 | 8월 | 9월 | 10월 | 11월 | 12월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328 (4.3) | 370 (4.9) | 583 (7.7) | 776 (10.2) | 946 (12.5) | 873 (11.5) | 860 (11.4) | 717 (9.5) | 752 (9.9) | 720 (9.5) | 358 (4.7) | 297 (3.9) |

- **(장소별)** 장소가 확인된 4,122건을 살펴보면, '공원'이 1,234건(29.9%), '키즈카페(실내놀이터)'가 1,082건(26.2%)으로 전체의 56.1%를 차지했으며, '놀이공원' 705건(17.1%), '목욕탕' 574건(13.9%), '워터파크 및 물놀이시설' 141건(3.4%) 순으로 나타남.

[장소별 현황]

단위: 건, (%)

| 구분 | 건수(비율)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공원 | 1,234 (29.9) |
| 키즈카페(실내놀이터) | 1,082 (26.2) |
| 놀이공원 | 705 (17.1) |
| 목욕탕 | 574 (13.9) |
| 워터파크 및 물놀이시설 | 141 (3.4) |
| 광장 | 72 (1.7) |
| 찜질방 | 59 (1.4) |
| 테마공원 | 46 (1.1) |
| 박물관 | 46 (1.1) |
| 영화관 | 40 (1.0) |

- **(품목별)** 주요 위해품목으로는 '미끄럼틀'(1,056건, 13.9%)과 '트램폴린'(807건, 10.6%)이 가장 많았으며, 놀이터 시설 이외에 '목욕탕 시설로 인해 다친 사례'(494건, 6.5%)나 '자전거'(230건, 3.0%)로 인한 사례도 있었음.

[품목별 현황]

단위: 건, (%)

| 구분 | 건수(비율) | |
|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미끄럼틀 | 1,056 | (13.9) |
| 트램폴린 | 807 | (10.6) |
| 그네 | 619 | (8.1) |
| 목욕탕 시설 | 494 | (6.5) |
| 철봉·체조봉·평균대 | 425 | (5.6) |
| 놀이터 내 | 393 | (5.2) |
| 기어오르기 시설 | 301 | (4.0) |
| 키즈카페 | 287 | (3.8) |
| 놀이터용 철봉 | 247 | (3.2) |
| 자전거 | 230 | (3.0) |

- (위해원인별) '미끄러짐·넘어짐'이 3,006건(39.6%), '추락'이 2,167건(28.5%), '부딪힘'이 2,167건(28.5%)으로 전체의 88.9%를 차지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남.

[원인별 현황]

단위: 건, (%)

| 구분 | 건수(비율) |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미끄러짐·넘어짐 | 3,006 | (39.6) |
| 추락 | 2,167 | (28.5) |
| 부딪힘 | 1,581 | (20.8) |
| 놀림·끼임 | 253 | (3.3) |
| 기타 물리적 충격 | 234 | (3.1) |
| 예리함·마감처리 불량 | 116 | (1.5) |
| 기타(충돌, 고온물질, 파손 등) | 246 | (3.2) |
| 합계 | 7,603 | (100.0) |

- (위해부위별) '머리·얼굴'을 다친 사고가 4,351건(57.2%)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, 다음으로 '팔·손' 1,697건(22.3%), '둔부·다리·발' 1,143건(15.0%), '몸통' 207건(2.7%), '목·어깨' 156건(2.1%) 순임.

[위해부위별 현황]

단위: 건, (%)

| 구분 | 건수(비율) |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머리·얼굴 | 4,351 | (57.2) |
| 팔·손 | 1,697 | (22.3) |
| 둔부·다리·발 | 1,143 | (15.0) |
| 몸통 | 207 | (2.7) |
| 목·어깨 | 156 | (2.1) |
| 기타 | 49 | (0.7) |
| 합계 | 7,603 | (100.0) |

- (위해증상별) ‘열상(찢어짐)’이 2,950건(38.8%), ‘타박상’이 1,469건(19.3%), ‘골절’이 1,326건(17.4%)으로 전체의 75.6%를 차지했고, 다음으로 ‘찰과상’ 610건(8.0%), ‘염좌’ 373건(4.9%), ‘뇌진탕’ 288건(3.8%), ‘탈구’ 141건(1.9%) 순으로 나타남.

[위해증상별 현황]

단위: 건, (%)

| 구분 | 건수(비율) |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열상(찢어짐) | 2,950 | (38.8) |
| 타박상 | 1,469 | (19.3) |
| 골절 | 1,326 | (17.4) |
| 찰과상 | 610 | (8.0) |
| 염좌 | 373 | (4.9) |
| 뇌진탕 | 288 | (3.8) |
| 탈구 | 141 | (1.9) |
| 기타(출혈, 부종, 두통 등) | 446 | (5.9) |
| 합계 | 7,603 | (100.0) |

□ 주요 사례

| | |
|--------------|--|
| 공원 | 2015년 3월 A군(만12세)은 공원에서 롤러스케이트를 타다 뒤로 넘어져 머리 손상을 입음. |
| 키즈카페 (실내놀이터) | 2016년 9월 B양(만11세)은 실내놀이터의 트램폴린에서 뛰고 놀다가 넘어져 팔 골절과 팔꿈치 타박상을 입음. |
| 놀이공원 | 2017년 5월 C군(만7세)은 놀이공원 내 놀이터에서 돌다가 미끄럼틀에서 떨어져 머리와 허리에 타박상을 입음. |
| 목욕탕 | 2018년 7월 D양(만5세)은 목욕탕 내 탈의실에서 미끄러져 머리 손상을 입음. |



꼭 지켜야 할 어린이 안전 수칙 **두번째**,
트램폴린



점프 후 손을
잡지 않고
두 발로
착지합니다.



주머니에
물건을
넣고 러지
않습니다.



다른 사람과
멀리 떨어져
트램폴린을
이용합니다.



미끄럼 방지
양말을 신고
합니다.

꼭 지켜야 할 어린이 안전 수칙 **세번째**,
그네



완전히 정지한 후에
타고 내립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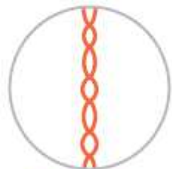
줄을 양손으로 잡고 타며
그네가 움직이는 도중에
뛰어 내리지 않습니다.



한가운데에
앉아서 합니다.



배를 깔고 앞뒤려서 타거나
서서 타지 않습니다.



사슬을 꼬지
않습니다.



다른 사람이 타고 있을 때
앞뒤로 지나가지
않습니다.

꼭 지켜야 할 어린이 안전 수칙 **네번째**,

자전거/롤러스케이트



차가 다니지 않는
안전한 공원나
공원에서 탑니다.



손에 물건을
들지 않습니다.



자전거는
물에 맞아야 하고
안장에 앉았을 때
발이 땅에 닿는 것이
적당합니다.



안전모와 보호대 등
보호 장구를
착용합니다.



밝은 색의
옷을 입습니다.



핸들을
양손으로 잡고
바른 자세로 탑니다.



내리막길에서는
가속되어 위험하므로
내려서 걸습니다.



새벽이나 저녁에
타지 않습니다.

꼭 지켜야 할 어린이 안전 수칙 **다섯번째**,

철봉/평균대



자신의 키보다 너무 높은
철봉에 매달리지 않습니다.



거꾸로 매달리지
않습니다.



내려올 때는 발에 충격이
올 수 있으므로 주의합니다.



중심을 잃지
않도록
양손으로 잡고
올라갑니다.



위에 있는
사람의 발을
잡거나 흔들지
않습니다.

꼭 지켜야 할 어린이 안전 수칙 **여섯번째**

축구/야구 등



준비운동으로
근육을 풀어줍니다.



공은 부드러운 소재로
만들어진 것을 사용합니다.



보호 장구를
착용합니다.

신발은 발에
맞아야 하고
끈이 풀어지지
않도록 단단히
 묶습니다.



네트에 오르지
않습니다.



꼭 지켜야 할 어린이 안전 수칙 **일곱번째**

목욕탕 시설



바닥이
미끄러울 수 있으므로
뛰지 않습니다.



탕 안에서
위험한 행동을
하지 않습니다.

꼭 지켜야 할 어린이 안전 수칙 **여덟번째**,
놀이공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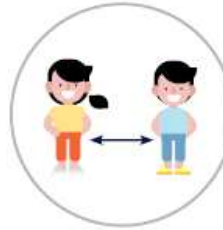
기구별로
탑승 가능한
키와 나이
조건을
준수합니다.



안전하게
탑승하고
안전띠 등
안전장치를
확인합니다.



쉬는 시간을
갖습니다.



순서를
기다릴 때는
상대방과 일정
거리를 두고
기다립니다.